



[정책동향] 오스트리아, 식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

- 우유, 육류 및 계란 가공품, 공공급식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추진



오스트리아 정부가 내년부터 우유, 육류 및 계란 가공품 및 공공급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.

오스트리아 인구의 약 86%가 식음료의 원산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, 치즈, 소시지 등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식당, 병원 등 공공급식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함에 따라 식품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, 음식의 주성분으로 50% 이상 사용된 육류, 우유 및 계란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. 특히 우유의 경우 생산이 이루어진 목장을 기준으로 하고, 치즈, 소시지, 마요네즈 등 가공품은 가공 및 포장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가 표시될 예정이다. 또한,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업체는 안내문이나 메뉴판 등을 통해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.

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식자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산 제품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< 출처 : dairyindustries.com, 5월 11일 >

[시장동향] 美,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유제품 가격 상승세 이어져

-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소폭 하락...유제품 가격은 상승



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가격은 여전히 하락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.

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9.4%나 오른 가운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에 비해 0.2% 하락하며 상승률이 소폭 둔화했지만 버터 및 마가린 가격은 전년대비 19%, 우유 가격은 15%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업계관계자는 최근 인력난 장기화로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고 젖소 사육에 필요한 사료 및 비료의 평균 가격도 두 배 이상 오르면서 농가는 물론 유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, 연료비 급상승 및 대형트럭 운전자 부족으로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면서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.

< 출처 : wkbw.com, 5월 11일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